

# 주요 피투자기업 현황 요약(정기주총 후기)

2024. 4.17.  
(주)밸류인베스트코리아

## 1. 뉴라텍

### ■ 현황

#### ○ 칩셋 제품 사업

(기존 제품) 세계 최초 출시 제품인 IEEE 802.11ah 표준기반의 장거리저전력 와이파이 칩셋 제품(NRC7292)은 사물인터넷(IOT) 구현을 위한 핵심 무선통신 기술로서 각종 센서, 전자식 매대표시기(ESL), 보안카메라, 웨어러블, 스마트그리드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561백만원, 390백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마케팅 조직을 재정비하여 고객사 및 납품 물량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 신제품 개발

NRC7292의 개량 제품인 NRC7394의 경우 NRC7292 대비 가격경쟁력 및 성능을 개선한 제품으로 시장 확산 및 규모의 경제 확보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며, 2023년 하반기 상용 제품을 출시하였음. 현재 중국 SUNMI사에서 뉴라텍 NRC7394 칩셋을 탑재한 스마트결제단말기(POS) 및 미니AP를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대상으로 출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제품군을 11개로 확대하고, 글로벌 POS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칩셋 판매를 확대할 계획임. 또한 다양한 IoT 어플리케이션 시장에 있어 경쟁기술 대비 핵심 경쟁우위 요소라 할 수 있는 블루투스(BLE) 수준의 초저전력 성능을 바탕으로 고속장거리저비용의 상대적 이점을 보유한 NRC529X의 제품 개발을 진행 중임.

#### ○ 표준특허

뉴라텍 자회사인 뉴라컴은 와이파이6 표준특허 수익화를 위하여 2020년 10월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Acacia Research의 자회사인 AGT(Atlas Global Technologies)와 특허 매각 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31,371백만원, 2022년 19,379백만원, 2023년 13,054백만원을 영업수익으로 실현하였음. AGT는 1차 협상 라운드로 전세계 와이파이 6 칩셋 탑재 디바이스/장비 제조업체, 서비스 업체 등 50여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중 삼성전자 등을 포함한 일부 기업의 경우 협상이 타결되어 로열티가 징수되었거나 징수예정 상태에 있으며, 그 외 다수 기업들과도 협상 마무리단계에 있음. 이에 따라 뉴라컴은 향후 지속적인 대규모 특허 로열티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 IPO 전망

○ 당사는 상장 준비를 위해 2024년 3사분기에 명의개서인을 통한 통일주권 발행과 전자등록을 완료할 예정임. 이를 위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2사분기에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을 통해 전환비용 산정을 위한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임시주주총회에서 확정할 계획임. 또한 칩셋 매출 증가에 영업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경영환경, 기술경쟁력, 사업내용, 성장가능성 등 질적 심사기준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들을 수행해 나갈 계획임.

○ 당사는 동사의 IPO 추진과정에서 희석될 대표이사 지분율(현재 18.5%로서 다소 낮음) 등을 고려, 경영권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하여는 긴밀히 협조하되, 당사의 전체 채권 회수목표액 중 동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것을 감안하여 최적의 합의점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임.

## 2. 스페셜데이터서비스(구. 압컴퍼니)

○ 당사는 2023년 매출액이 61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90백만원 감소하였지만 구조조정 및 사무실 이전 등을 통한 비용절감을 추진한 결과 영업손실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어 △663백만원을 실현하였음.

○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위치, 동선, 공간을 데이터화하여 데이터 에이전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통합정산프로그램을 완성할 계획이며, 운영자금 확보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 유치를 추진 중임.

○ 당사는 동사의 주식을 현재 6,264,303주(지분율 14.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밖에 당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JNC5호개인투자조합 및 JNC5A호개인투자조합이 총 6,466,133주(지분율 15.0%)를 보유하고 있음.

## 3. 인코스팜

### ■ 현황

○ 2023년에 매출액 5,085백만원, 영업손실 36백만원, 당기순손실 268백만원을 기록하였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61% 증가하고, 영업손실은 전년의 17억원에서 대폭 개선되었음.

○ 2023년 상반기에 화장품산업의 호전으로 매출이 증가하였고, 하반기에는 (주)2K바이오와 국내 총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약 20억원의 원료 매출이 증가하였음. 2022년 일본 아리스타그룹과의 독점계약 파기로 인한 해외 매출 비중이 감소하고, 탈모 샴푸와 염모제 상품 출시 역시 식약처 승인 지연으로 인해 2023년 매출 목표인 70억원을 하회한 50억원 달성함.

○ 2024년의 매출액 목표는 60억원이며, 손익분기점(BEP)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금년 3월 상장한 (주)2K바이오의 채널 인프라를 통해 국내 화장품 소재 시장(한국콜마, 코스맥스 등)에서 매출액 30억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태국, 일본, 미국의 협력사와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중국, 유럽,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화장품 원료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할 계획임. 또한 자사의 핵심 플랫폼인 AMPed™(자가포식 조절 펩타이드 유도체)를 활용한 연구용역 매출의 증대와 원료 효능 평가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국내 상장 제약사를 포함 12개 업체와 협업을 추진할 계획임.

### ■ 투자유치 및 지분매각 전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금 30억원(사옥 건설 용도)과 전환사채 10억원을 상환하고, 동사의 AMPed™ 시스템을 증설하기 위해 약 100억원의 투자자금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당사는 동사의 전략적 투자자로서 지난 3월 25일 코스닥시장에 스펙 합병 상장한 (주)2K바이오의 당사 지분에 대한 매수 의사를 타진하는 등 지분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4. 인우산업

○ 인우산업(순수 지주회사)은 실질적으로 자회사 (주)진에너지와 손회사인 (주)바이오에너텍을 통해 하수슬러지 연료화 사업 및 버섯폐배지를 재활용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 연료를 생산하고 있음. 자회사인 진에너지는 2021년부터 하수슬러지 고유약취제거가 최대 화두로 급부상하여 발전소 입찰물량이 급감했고, 2023년에는 청양사업장의 가동중단으로 인해 매출이 전무하였음. 손회사인 바이오에너텍은 2022년 하반기부터 버섯배지 및 목재펠릿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2023년 매출액 100억원, 영업이익 3.9억원으로 흑자 전환하였으나, 진에너지의 약취제거 설비증설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지연되면서 재정 악화에 따른 경영난 가중 및 기업존폐 위기에 처함.

○ 기존 바이오에너텍 흥성사업장에 소규모 하수슬러지 열처리 설비를 설치, 가동하여 매월 EBITDA 기준 이익 3억원을 목표로 자생 이익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은 하수슬러지 사업을 영위하는 진에너지의 열처리 설비증설을 위하여 SGC에너지(잠재 수요처) 및 폐기물업계 PE사에 집중적으로 사업 타당성 및 투자조건을 조율하여 펀딩을 추진할 계획임.

#### 5. 인성메디칼

##### ■ 현황

○ 당사는 1993년에 설립된 의료기기 전문제조 기업으로 국내외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일회성 의료 소모품을 친환경 고무재질(실리콘, Non-PVC)로 생산하여 전통적으로 고가의 수입산 의료기기들이 점유하고 있던 국내 일회성 의료기기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인체와 직접 접촉되는 정맥용 수액세트, 의약품 주입용 기구 제품들과 신기술 적용 자가통증 조절기(PCA) 등의 신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2023년에 매출액은 3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률은 9.2%로 전년(10%) 대비 하락하였고, 기타수익 9억원 증가로 세전이익은 전년 대비 13억원 증가하였음. 2024년에는 1분기 매출액이 100억원 예상되는 등 매출액은 400억원으로 증가가 예상되지만 비용 상승으로 인해 이익 개선이 과제임.

##### ■ 투자유치 및 지분매각 전망

○ 2023년에 기관주주들의 우선주 75만주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전액 상환되었고, 상장 주관사인 유안타증권 주도로 금년 매출액 및 이익이 개선되는 결과에 따라 2025년 상반기에 상장 청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당사도 하반기부터 기존 투자기관들과 지분매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